

“오천원만 빌려줘. 나의 이 괴물같은 얼굴 이전의 스타. 플레이어 <이재영>을 알고 있는 김혜숙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구걸이다.”

그의 당당한 요구에 건네준 돈. 나의 돈으로 사모은 약을 먹고 죽은 그의 주검은 끝내 나의 차지였다.

✧ 優秀作 ✧

유리배 얘기

李 蘭 浩

<서울시 중구 신당 2동 432~1202>

내가 열살 전후해서 자란 마을은 먼 소재지로 부터 꼭 그 작은 소음을 길러 낼 만큼의 폭과 길이가 알맞은 내를 끼고 삼십분 남짓 걸음해서 만나지는 산.

이것만은 꽤 울창한 산. 그 산 아래에 있었다. 학교도 우체국도 면사무소도, 지서도 그리고 잡화상도 모두 그 먼 소재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를 오가면서 동네 사람들의 편지 부치기, 성냥이나 양젓물사오기 따위 심부름을 수 없이 했는데 그때마다 숫하게 그 냇물에 돌을 집어 넣었다.

“아서라 그물은 우리 고을 사람 모두를 먹여 살려 주는 거란다”

더러 낫선 할아버지가 우리의 팔매질을 멈추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말투나 얼굴 표정 어느 한 구석에도 호령끼는 없이 눈에 함박 웃음을 담은 채여서 오히려 팔매질에 더 신이날 정도였다.

면소재지와 우리 마을 중간쯤에 “유리배” 네 집이 있었다. 그집을 땅집이라고도 했다. 산 허리를 세로 베어내고 그 언덕을 파내어 집을 만들어 집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아예 언덕이 집을 반 넘어 삼켜 버린듯도 했다. 별에서는 그냥 다른 삼작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모든 증오는 사랑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 밖에. 나와 그의 청춘이 사그라진 그의 주검을 나의 손으로 묻어 주어야 했다. 그리고 작은 묘비를 세웠다.

“당신과 나의 젊음은 여기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재영씨의 혜숙.”

기웃해 보면 굴을 막아서 방문구실을 하는 가마뱀기 가리도 있었고 작은 항아리며 세숫대야도 보였다.

나는 그곳에 다다르면 마음이 무거웠다. 이상하게도 그 빛바랜 솔가지 위에 햇살이 내릴때 그런대로 그 위에 빗발이라도 뿌릴때 또 그런대로 그집은 슬픔같은 걸 내어 뿜는듯 싶었다.

늙은 빵장수 아버지랑 내 또래인 영순이가 살았는데 왜 그 집을 아무도 영순네라 않고 유리배네라고들 하는지 몰랐다. 모르면서 그냥 우리도 그렇게 불렀다.

영순이는 학교를 아주 싫어해서 입학을 완강히 거부했기때문에 우리랑 동행할 수 없었지만 자주 그집 앞을 오가는 우리하고는 자연 낮이 익어 있었다. 그때 우리가 “유리배야”하면 영순이는 웬지 금방 대답은 않고 되래 삼작뒤로 일부러 숨거나 휙 돌아서 버리거나 하고는 우리가 저만큼 갔을 때야 “왜에 야아”하고 높고 길게 그리고 정을 청하는 목소리로 몇번이나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럴때 나는 그만 그 영순이에게 뭐든지 다주고 싶어지곤 했다.

매일 매일 빵틀을 자전거에 싣고 면소재지로

빵을 구어서 나가는 영순이 아버지는 아침길에 우릴 만나면 “느인학교 가니까 좋겠다. 그래 요샌 뭘 배우니?”

하고는 으레 곧 이어서 “공부 잘 해야지. 그리구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이 아저씨를 보렴, 조심을 안해서, 이렇게 가난뱅이가 된 거란다.”

“무슨 조심요?” 우리가 합창을 하면 “차조심 불조심, 불조심”

하고는 어느새 저만큼 달려가 버렸다.

“피이! 차조심도 불조심도 우린 해야 하지만 불조심까지 우리가 해야되니? 불조심은 불 때서 밥하는 얼마가 해야지.”

“아니다. 담배 피는 아버지도 불조심은 해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유리베네에 대해서 어른들 한테서 주위들은 얘기를 제가끔 지껄이기 시작한다. 유리베네는 멀리 서울이라는 데서 땅 덩어리 만큼 큰 집을 갖고 가마니에 돈을 가득 가득 채워놓고 살던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만 불이나서 그 땅덩이 만한 집이랑 돈 가마니가 뭉땅 타 버렸고 두번째 불이 났을때는 두 아이랑 영순이 어머니를 잃었고 겨우 영순이 하나만 꺼내 업고 정처없이 떠나 이곳에 이르렀다고 한 아이가 말하던 다른 한 아이는 으레 그게 아니고 영순이 어머니는 그 후에 영순네가 너무 가난 해져서 딴 곳에 시집가 버렸다고 고쳐 말했다.

아무튼 우리는 불을 두번씩이나 내어서 알거지로 되게한 영순 어머니가 형편 없이 바보라는 데에서도 의견이 일치 되었다.

“우리엄만 한번도 불을 안냈다.”

“우리엄마도.”

“우리집도”

“영순이 엄마는 두번씩이나 불을 내니까 하느님이 별로 불귀신을 만들었을 꺼다. 그래서 팔랑 팔랑 날아 다니면서 아무데나 불을 지를꺼다.”

얘기는 이렇게 황당 무개하게 비약했다. 그러

나 우리는 그때 실제로 뒤를 흘끔 거리면서 서로 앞서 걸으려고 하면서 제각기 불귀신의 형상을 머리속에 그려보곤 무서워 했었다.

다시 유리베네 음막이 타던날은 내가 좀 철이 들 무렵의 이른 봄이었다 보다. 애들은 뭇가 신바람 같은걸 일구면서 그곳에 몰려갔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산 비탈로 부터 냇가까지 줄로 늘어서서 물을 퍼 건네 울리고 있었다.

불이 꺼지고 이윽고 그슬린 양은 숲이랑 깨진 항아리랑 갯속에서 끄집어낸 못 볼 모양의 이불 때기 저쪽에 가마니 가리개가 타버려서 방속은 그냥 입을 벌린 꺼먼 구멍이 있었다. 그 입구에 얼굴이 엉망으로 거명칠을한 빵장수가 같은 말을 끊임없이 증언거리고 있었는데 “운명이요. 운명” 이렇게 들렸다. 누군가가 그래도 인명이 안 상해서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 때도 “운명이요. 운명”하고 대답했고 다른 아저씨가 저 아래 동네로 내려가서 숨이나 깊이 내어 뿔으라고 할 때도 그렇게 대답했다. 그제서야 나는 영순이를 찾아왔다.

그때의 영순이. 그 영순이. 그애는 어떤 부인베의 회색빛 긴 치마를 목에서 동여매어 날아뜨려 걸치고 서 있었는데 그 아래에 벌건 땀발이 보였다. 그 애는 큰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했다. 나도 아무말도 못하고 그 애 얼굴을 바라봤다. 어른 치마를 걸쳐서 피기 하도록 커 보이기도 하고 가슴 딱히게 가없어 보이기도 더했다. 그것은 내가 최초의 맞닥드린 불행의 실체였으며 전날 그 앞을 오가며 느꼈던 암울했던 이유의 답이었다.

유리베는 이제 딴 아이였다. 우리가 아무리 정겹게 유리베야 불러도 그애는 대답을 안 하리라. 우리는 그 목소리를 못 들으리라. 영원히.

빵장수는 이미 누구에겐가 끌려서 언덕 아래로 내려갔고 그래서 유리베는 한동안 그 모양으로 잊혀진듯 서 있어야 했다. 낙원으로부터 밀려난 아이. 눈 깜박할 사이에 그 애는 그렇게 됐

다. 그 후 얼마 안가 나는 그곳을 벗고 이십년도 더 지났는데 그 때의 영순이 모습이 아직도 내게 생생하니 허트러짐 없이 떠오른다. 맑은 넷물과 그늘 질었던 산. 함박 웃던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재잘거림. 그 어린날의 영롱한 그림책에 영순이의 회색 치마가 내리 덮히곤 할때 나는 소스라치면서 늙은 빵장수가 되내던 운명을 향해서 차츰차츰 도전의 화살을 날리고 싶어졌다. 나는 영순이가 되어서 회색의 남루를 걸치고 검은 연기에 뒤편 끼는 꿈을 얼마나 꾸었던가? 어느때는 유리배라는 투명한 진공의 직육면체 속에서 숨막히어 허덕이는 꿈도 꾸었다.

그러는새 내게는 하나의 유리배가 형체를 갖추어 자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불행의 요소로부터 불가침의 요람. 그 완벽한 차단체에 나는 불쌍한 영순이를 우선 태웠다. 그 다음 사랑하는 내 아이 낫익은 이웃 모두를 태운다. 내 나라의 착한 모두를 그리고 인류를 그곳에 태운다.

아, 실제로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 참말로 우리 인간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부터 벗어 날

수는 없을까?

알 수 없다. 우리는 참말로 모든 불행에 부도체인 유리배를 구축할 수 없는가? 역시 답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짝고 다듬고 쪼아 맞춘다. 제가꿈의 유리배를 짓기 위해서 그들은 잠양껏 노력한다. 혼한 말로 그것은 도로일 망정 그 뜻이 바른한 성스럽다. 무엇을 그들은 열심히 두드려 대는가? 나는 모른다. 구태여 말할 까닭도 없다. 그저 막연히 태만과 이유없는 낙관과 실속 없는 자만, 딱한 이기, 이런 따위 미운 말의 반대어들도 살아져서 이루어 지리라 믿는다. 그들은 적어도 재앙에 무방비였던 유리배네 처럼, 운명 어찌구는 안 하리라 확신한다. 이것은 즐겁다.

이윽고 다시 내 백일몽.

마지막 한사람 그가 뒹굴때 나는 맨 마지막으로 내 방주에 올라 문을 잠그리라. 내가 가슴 아파해야 할 아무도 탁류에 빠뜨려 남겨두지 않고 문을 잠글 수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